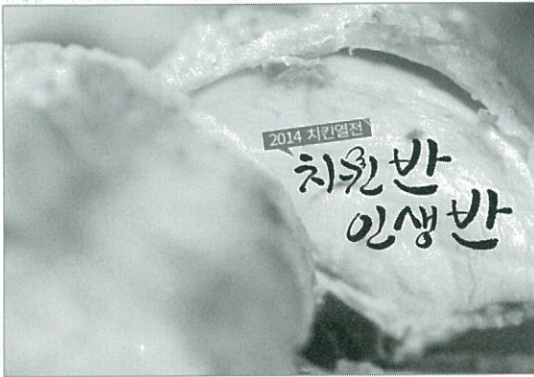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방송 실시

SBS스페셜 '치킨으로 본 대한민국' 방영



본회는 치즈님, 치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사랑받고 있는 치킨을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저녁 11시 15분에 방영된 'SBS스페셜' <치킨으로 본 대한민국 - 치킨 반 인생 반>에 그간 협회와 함께 국산 닭고기 홍보에 앞장서 온 연세대학교 치킨동아리 피닉스를 출연시키는 등 방송 홍보를 진행했다.

중국 대륙을 강타한 치맥의 인기로 힘입어 중국 상해의 한국 치킨집 앞에는 중국인들이 연일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난 8

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Ningbo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는 4일간 약 46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국내를 찾은 외국인들의 치킨 사랑은 계속되었고 방송은 한국을 찾은 홍콩 관광객들이 '치킨 캠프'를 견학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단지 치킨이 좋아서 몽친 연세대학교 치킨동아리 피닉스는 치킨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룹으로 이번 방송에 출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치킨을 즐기는 모습과 자신들에게 치킨이 갖는 공동체적 의미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치킨을 더욱 친숙하고 새로운 문화를 내포한 음식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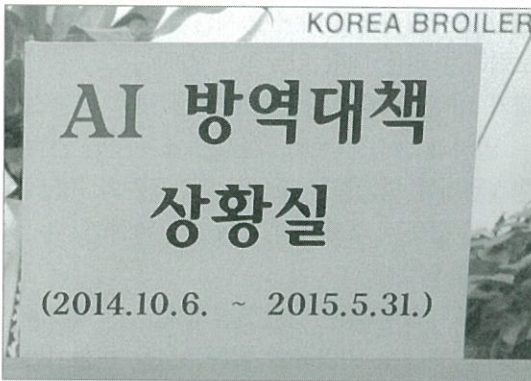
이렇듯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치킨 사랑에 '인1닭'이라는 말은 이미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와 같은 재기 발랄한 치킨 명언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명예 퇴직자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도전하며, 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창업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치킨성공시대'를 꿈꾸며 도전하는 젊은 청장년층들의 꿈과 희망이 부각되었다. 패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치킨 메뉴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단순히 방송 시간 동안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 기대 효과 외에도 색다른 시각에서 치킨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국내산 닭고기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며 침체된 닭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AI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지난 9월 24일, 10월 7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 오리 사육농장에서 신고한 AI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본회는 회원사와 회원농가에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10월 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협회 사무실에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파상황을 회원사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회원농가에서는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고전화 : 1588-4060

##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대상 일부 변경 알림

도축장으로만 출하되는 육계 발급 대상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적용하던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과 관련 발급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본회는 이 같은 내용을 회원사에 알리고,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다음 -

### ■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대상 변경

- (당초) 모든 가금류 이동시 발급 → (변경) 도축장으로만 출하되는 육계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단, 전라남도는 2014. 1. 16일 이후 AI 발생지역(시·군·구)은 기존대로 모든 가금류에 대하여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
- 육계 가금이동승인서 대상 제외에 따른 방역조치
  - 출하시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도축장에서 필히 확인 조치
  - 출하차량은 도축장까지 이송 시 타 농가 방문을 금지토록 하고 도축장에서 필히 소독 후 출차
  - 출하 육계농가가 출하 7일전부터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FAX, 메일 등)토록 교육 및 홍보 실시

- 해당 지자체는 임상검사 결과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전화 등)

## 전통시장에서의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 폐지 반대

### 식약처에 포장유통 의무화 정책 유지 요청

본회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동법의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가금육의 포장유통 의무화제도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관련법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삽입해서 이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과 비용의 투입이 일순간에 사라짐은 물론,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HACCP 시스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포장유통 의무화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가금육에 대한 위생과 안전측면에서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

이 조장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회 정병학 회장은 “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전통시장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그 정책 효과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주요핵심 사항까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회는 지난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산 가금육의 유통품질을 향상시키는 포장유통 의무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9월 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 가금육의 포장유통의무화 제도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 하는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2014 제2회 전국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본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4 제2회 전국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 행사 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 결과 (주)대진이앤컴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11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최근 닭고기업계 어려운 상황에 대해 논하고, 닭고기 소비촉진 방안을 비롯한 현안 문제 해결책 제시에 대한 내용을 11월호 특집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 소식 보내실 곳 ♣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